

★ 2005년 04월 24일 ★ 국가직 기출문제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③	④	②	①	①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④	①	②	②	②	①	④

- ① 광총광총 → 광총광총 ② 아니꼬와 → 아니꼬워 ③ 네째 → 넷째, 아등바등 → 아등바등
- ④ 오금 : 무릎이 구부러지는, 다리의 뒤쪽 부분. 뒷무릎.
‘발의 뒤쪽’은 ‘발꿈치’이다.
- ① 계시겠습니까. → 있겠습니까.
② 자신의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각각을 지칭할 때 ‘님’을 붙이지 않으며, ‘저희’보다는 ‘제’를 쓰는 것이 옳다.
④ 나라, 민족 등은 어느 것과 비교해서 낯설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옳다.
- ① '넘어'는 "산을 넘어 간다"처럼 동작을 나타내지만 '너머'는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산의 저편의 먼 길을 떠난다는 뜻의 문장으로 '너머'가 옳다.
② '왓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왓지'로 써야 한다. '왓지'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왓'은 '왓지'에서만 쓰인다. 따라서 이외의 다른 표현에는 모두 '왓'을 쓴다.
④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므로'가 옳다.
- ① 改 → 開 '열다'의 뜻으로 쓰임.
② 事 → 史 '역사'의 뜻으로 쓰임.
③ 防火 : 화재를 미리 막다. → '放火 : 불을 놓다.'가 옳다.
- ② juice → 주스 : 'ㅈ,ㅈ' 뒤에는 단모음만 인정한다.
cake → 케이크, boat → 보트, alcohol → 알코올
- ① 모음이화가 아닌 'ㅣ'모음 역행동화이다.
이화 : 한 단어 안에 자음 혹은 모음이 비슷한 음운이 둘 이상 겹쳐 있을 때 한 음운을 바꾸어 보다 명료하게 바꾸는 음운 현상.
- ※ 박종홍 「학문의 목적」
글쓰는 지문에서 학문의 본래의 바른 방향을 벗어남을 우려하고 있다.
① 국학아세 :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② 구절양장 : 아홉 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으로,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이르는 말
③ 학수고대 : 학의 목처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④ 다기망양 : (1) 달아난 양을 찾으려 할 때 갈림길이 많아 끝내는 양을 잃는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진리를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2) 방침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름.
- ② 발본색원 : 폐단의 근본 원인을 아주 없앴.
① 호구지책, ③ 주객전도, ④ 수수방관
- '마스터플랜'은 기본계획,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문에서 틈새시장에의 전략은 막대한 자본 투자와 오랜 연구 개발 기간이 걸리는 기술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①의 최신의 DVD 개발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틈새시장에 대한 전략과는 이질적이다.

12. 「신록예찬」은 번잡한 세상에서 떠나 순수하고 밝은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다는 글쓴이의 삶의 방식이 묻어 있는 글이다. 이는 지리산 양단수를 무릉도원 삼아 자신이 그곳에 있음을 노래한 ①과 삶의 방식이 같다.

13. ④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일시적 해방감을 갖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과정을 겪는다. 이를 글쓴이는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잔류하면서 해방의 순간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였다.

① 여행은 일상의 권태로부터의 해방이고, 또 여행은 고생스럽다고 말한다.

② 금리생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속 편하다고 말한다.

③ ‘보편적인 심성’은 일상의 권태로부터의 탈출과 해방을 가리키는 것이다.

14. ④ ‘변화시킨다’로 고치면 ‘여성 해방적 시각이란 ~ 변화시킨다’로 주어, 서술어 간의 호응이 되지 않고 ‘견지’는 ‘관점’과 유사한 뜻이므로 굳이 쓸 필요없다. → ‘변화시키려는 관점이다.’라 고치는 것이 옳다.

15. ② ‘결코’는 ‘~않았다’의 부정과 호응하고 ‘~는 점이다’는 빠져야 한다.

→ 허스팅스에서 시작하여 커존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영국 신민교육정책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영국의 인도통치의 영구화를 절대적으로 믿었다.

③ ‘사람에게는’ → ‘사람의 몸에는’

④ ‘반일 의식은’에 대한 서술어가 없다.

→ ‘반일 의식은 사건을 기만적으로 처리한 김홍집 내각에 대한 불신에 의해 깊어져 갔다.’

16. ② 정중동(靜中動) :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음.

① 사무사(思無邪) : 시 속에 담긴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③ 귀거래(歸去來) :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감. 중국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말이다.

④ 불세출(不世出) :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남. ‘매우 뛰어남’으로 순화.

17. ‘법치주의란 법의 지배’라는 주제를 사람에 의한 지배의 예를 들어 법치주의가 법에 의해서만 지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8. 내면의 평화와 명상의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보다 더욱 앞서는 가치라 말하고 있다. 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②이다.

19. ② 깨끗하게 정화하고 싶었다. → 깨끗하게 씻어주길 바랐다.

③ 분명한 것은 ~ 확실하다. → 분명한 것은 ~ 확실하다는 점이다.

④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되었다. → 자리를 옮기면서 축하잔치가 시작되었다.

20. ④ ‘격정적’은 ‘감정이 세차게 일어나는’이란 뜻으로 이 시는 소박했던 그리운 어린 시절의 고향을 서정적으로 읊고 있다. ‘격정적’은 옳지 않다.